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기관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재호 대리

2 박태환 주임

3 김동찬 대리

4 최희재 건강상담실장

5 노재훈 센터장

6 정윤주 팀장

7 박가희 주임

8 김혜령 주임

9 황혜원 대리

함께하면 건강해지는 곳

직원들 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친절하게 근로자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흡사 가족 같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긍지가 직원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보인다. 의사(직업환경의학, 가정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상담심리사,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인천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4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 중 제일 먼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직종별, 유해인자별 건강 상담 및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노재훈 센터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인천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할 만큼 근로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센터의 장점을 짚어주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가정의학 전문의의 협진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나 기존 의료기관과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센터를 방문한 근로자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등록카드를 작성한다. 직업적 요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작업내용, 작업환경, 근무형태, 건강이상경험 등을 작성하고, 개인적 요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등록카드를 바탕으로 센터 전문가가 직종별 유해요인(Job Hazard)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요구도를 기초로 전문 건강 상담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직업(근무)환경 상담 등 전문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인지강화를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센터에서는 진단과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회사 주치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회사 주치의’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장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작업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직업병 예방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예방 및 직업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181개소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으며 센터에 직접 찾아올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검진 후 사후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보건교육, 근골격계 질환 관리,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작업환경 관리(사업장 컨설팅,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 건강 상담, 건강



“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상담한다는 점이
타 의료기관과 구별된다

”



관리프로그램 등의 활동시간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광범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병 발생 및 불량 작업환경 인지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탄을 중독사고, 불산 누출사고 등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CNC 가공업, 용접업, 도장공, 운수업, 콜센터 상담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유해인자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46종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회사 주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운주 팀장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 사업장에서 직업병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종종 만나며 '미리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이나 적정 보호구 착용 교육 등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기에 진단받아 예방·치료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양한 자원과 상담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TCE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피부발진이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피부과 진료만 받다가 사망에 이른 사례, 30년간 주물업종에서 근무한 어느 장인은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때까지 귀마개의 중요성과 착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을 접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까지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근로자건강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병 발생 사업장의 사후관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직업병 유소견자(혈중 납 농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한 주물업종 사업장의 경우, 건강 상담 및 사업장 중재활동을 통하여 작업 전환을 이행하였고 화학물질 공기 중 노출 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보호구 착용 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장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2년부터는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방문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의학 전문의 최희재 건강상담실장은 근로자, 나아가 사회와 소통하는 곳으로 거듭나고자 앞으로도 쉽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근로자들이 센터를 방문해 운동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배운 운동을 함께 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직원들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기쁩니다. 센터에서의 작은 경험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문의 1588-6497

상담시간 09:00~21:00